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790
----------	------

발의연월일 : 2020. 11. 26.

발 의 자 : 김병기 · 강준현 · 이정문
서영교 · 김진표 · 전용기
송갑석 · 송영길 · 인재근
민병덕 · 김병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성급 장교는 정원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보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장군인력을 정원 범위 내에서만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따라 수년간 장성급 장교직위의 공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인력의 유연한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과 같이 별도정원의 운용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성급 장교가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장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①·② (생략) <u><신 설></u>	제16조의2(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성급 장교가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장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u>